



터널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최우선으로 꼽히는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등 풀지 못한 과거에 대한 '공동체적 죄의식'은 타임슬립이나 과거와의 교신을 활용한 복고 수사극으로 발현된다.

최종회 12.5%(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하며 김은희 작가 대표작 반열에 오른 tvN '시그널' (2016)을 필두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은 OCN '터널' (2017), 그리고 최근 시작한 OCN '라이프 온 마스'까지 복고 수사극들은 물론 작가와 연출자의 역량을 무시할 수 없지만 웬만해서는 흑평을 듣는 일이 없다.

비슷한 포맷과 사건이라도 늘 새롭게 관심을 받고, 시청자들이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도록 만든다.

작가조차 언젠가 시즌2 제작을 기대한다고 밝힌 '시그널'은 1989년의 순경 이재한(조진웅분)과 2015년의 경위 박해영(이재훈)이 알 수 없는 현상에 의해 무전으로 교신하게 되면서 강력 범죄 사건들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DNA 대조 등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없던 시절, 박해영의 무전은 사건을 해결하고 추가 피해자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의지는 넘치지만 기술이 부족해 범인을 잡지 못한 당시의 수사관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원초적 육감이 담긴 설정인 셈이다.

이에서 다룬 에피소드 역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대도 조세형, 성수대교 붕괴사고,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 현실감을 더해 시청자들도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김은희 작가 특유의 촘촘하고 탄탄한 필력과 김원석 PD의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지면서 이 작품은 그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각본상, 여우주연상을 휩쓸었고 최근 일본에서도 리메이크작이 방송 중이다.

지난해 방송한 '터널' 역시 늦은 시간대 방송에도 시청률 6%를 기록, OCN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인기리에 종영했다.

이 작품은 1986년 여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던 형사 박광호(최진혁)가 터널에서 타임슬립해 2016년으로 점프,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발견하

며 다시 시작된 연쇄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범죄 수사극이다.

'시그널'처럼 이따금 무식하게 보이기도 하는 옛날 형사 박광호와 최첨단 수사력을 자랑하는 형사 김선재가 협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박광호가 아예 현대로 넘어와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옛날 형사가 현대에서 좌충우돌하면서도 특유의 집념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하고야 마는 모습에서 유머와 통쾌함을 동시에 줬던 게 특징이다. 또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점은 현실감을 높였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라이프 온 마스'는 2006년 영국드라마를 원작으로 했지만, 형사의 타임슬립이란 설정 때문에 원작보다 뒤늦게 탄생한 '터널'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라이프 온 마스'는 '터널'과 반대로 2018년의 형사 한태주(정경호)가 1988년으로 건너뛰어 육감과 몸으로 수사하는 강동철(박성웅) 등과 협업하는 포맷이다. 냉철하고 꼼꼼한 한태주가

법도 질차도 없이 무식하게 부딪히지만, 그만큼 속 시원하고 화통한 수사 스타일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원작이 있지만 88서울올림픽 배경부터 여성 연쇄 살인사건까지 실제로 있던 일들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현지화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충격을 준 원작의 결말을 따르지, 원작 이후 선보인 스펀오프의 세계관을 따를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렇듯 복고 수사극들이 꾸준히 나오고 또 호평받는 이유는 역시 '공감'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 온 마스' 관계자는 16일 "기본적으로 사건 해결을 원하는 본능과 호기심을 끄는 수사극이란 포맷에,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복고적 요소가 결합하니 공감력이 높아진다"며 "'시그널'과 '터널'도 그렇지만 특히 '라이프 온 마스'는 1988년 배경을 디테일까지 살려 현지화에 성공하고 몰입도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흥행의 비법 '복고수사극'

'시그널' '터널' 등 큰 호응...최근 '라이프 온 마스' 첫 방송

1년 공백 끝낸 '블랙핑크'

'블랙' 콘셉트 미니 1집 '스퀘어업' 발표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가 긴 공백을 깨고 돌아왔다.

지난해 6월 싱글 '마지막처럼'이 마지막이었으니 꼭 1년 만의 귀환이다. 강렬한 힙합 사운드에 도발적인 가사까지, 블랙과 핑크 중 이번에는 '블랙' 콘셉트에 가깝다.

블랙핑크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6시 공개될 미니 1집 '스퀘어업' (Square up)과 함께 근황을 소개했다.

2016년 8월 데뷔한 이들은 지난 2년간 다섯 장의 싱글을 냈다. 이 가운데 '마지막처럼'과 '붐바야'는 유튜브 3억뷰를 돌파했으며 '휘파람', '불장난'은 2억뷰를, '스테이'는 1억뷰를 넘겼다.

그러나 또래 걸그룹들이 3~4개월마다 미니앨범을 내는 걸 고려하면 현저히 활동량이 적은 편이다. 팬들이 YG 가수들의 신보 주기가 길다는 점에서 '좀처럼 보석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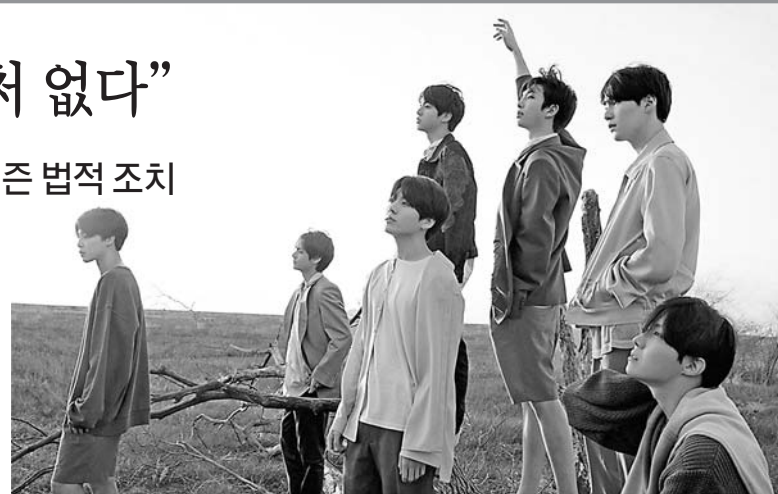
불만을 섞어 'YG 보석함'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뚜두뚜두' (DDU-DU DDU-DU)와 서브 타이틀 '포에버 영' (FOREVER YOUNG)을 비롯해 '리얼리' (Really), '시 유 레이터' (See you later)가

지 총 4곡이 담겼다. 데뷔 때부터 손잡았던 프로듀서 테디가 전곡을 프로듀싱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7월 24일 일본 오사카 오사카조 홀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치바 등 3개 도시에서 7회에 걸쳐 공연한다.

"악성 댓글 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악의적 네티즌 법적 조치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악성 누리꾼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15일 공식 팬카페에 '아티스트 권리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란 글을 올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이며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온라인 및 SNS상에서 유포된 방탄소년단 관련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

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빅히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 (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 대부분 선처나 합의 없이 형사처분이 완료됐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빅히트는 이러한 법적 대응은 자사 법무팀과 전문 로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음악 만들겠다"

대만 밴드 '노 파티 포 차오동' 24일 첫 내한

대만 밴드 '노 파티 포 차오동' (No Party for CaoDong·草東沒有派對)의 음악은 울분을 담고 있다. 막막함을 둔중중 베이스로 뒤흔들고 기타로 찢어놓는다.

어둡고도 독특한 이 밴드가 오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을 통해 처음 내한한다. 혁오밴드와 소녀시대를 좋아할 만큼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이들은 16일 이메일 인터뷰로 만났다.

차오동은 타이베이 인근의 대만 최북단 양밍산에 있는 거리 이름이다. 여기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2012년 밴드를 결성했다. 2016년에는 '강풍이 부네'로 대만 골든인디뮤직어워즈에서 최우수 록 싱글상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금 대만 사회에서 젊은 이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강풍이 부네'는 사회규칙에 대한 생각을 담담히 써내려간 곡입니다. 대만 청년들은 시험 위주의 교육 환경을 답답해해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월급이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사회가 기대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취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파티포차오동은 록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도 거부했

다. 이들은 "결국 좋은 음악은 다 같다. 장르는 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나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록이라는 장르는 계속 창의적으로 현대의 미학과 융합한다. 이것이 록이 더 깊은 맛이 나는 이유"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앞으로 음악적 목표를 묻자 멤버들은 다음과 같은 포부를 밝혔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프로듀스 48' 관심 속 첫 방송

시청률 1.1%...한일 연습생 96명 중 12명 데뷔

뜨거운 관심과 논란 속에 시작된 엠넷 '프로듀스 48'에서 일본인 참가자들은 실력 차이를 뚫고 최종 데뷔할 수 있을까.

1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첫 방송된 '프로듀스 48' 시청률은 1.1%를 기록했다. '프로듀스 101' 시즌1의 첫 회 시청률은 1.0%, 시즌2 첫 회 시청률은 1.6%였다.

'프로듀스 48'은 엠넷의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과 일본 프로듀서 아키토모 야스시가 선보인 걸 그룹 AKB48 시스템을 결합한 프로제

트다. AKB48 멤버를 포함해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한일 양국 연습생 96명 중 12명의 데뷔 멤버가 선발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인 96명의 연습생이 소개됐고 실력별로 A~F 그룹으로 배치하는 등급 평가가 진행됐다.

등급 평가에서는 기획사의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한국 연습생들과 달리, 스스로 연습해야 하고 춤과 노래 실력보다는 귀여운 이미지와 예교에 비중을 두는 일본 아이돌들의 실력이 현저



히 떨어졌다. 실력 차이와 트레이너들의 혹독한 평가에 일본 연습생들은 '속상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연출을 맡은 안준영 PD도 제작발표회에서 "한국 연습생들은 데뷔하기 전에 실력을 많이 키우지만, 일본은 데뷔 이후에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